



# 10월 지육시세는 3,200원/kg 예상

사상 처음으로 전국 8월 평균 비육돈 지육단가가 4000원대를 돌파하여 아무도 예상치 못한 4060원을 기록하여 사상 최고가 행진을 나타내 당초 전망과는 차이를 보였다. 주요 원인은 10년만의 폭염으로 비육말기돈의 사료섭취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돼지 성장이 지연되어 전국 일일 평균 도매시장 경락두수가 전월 대비 10.6% 감소한 3,268두를 기록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년 8월 주요 도매시장의 경락두수 127,044두와 금년 8월의 주요 도매시장 경락두수 84,970두와 비교시 33.1% 감소하여 돼지고기 값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원인은 바로 큰 폭의 출하두수 감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8월 출하두수를 바닥으로 출하두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9월 11일까지 도매시장 일일 평균 경락두수는 3,596두로 8월보다 10%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돼지들의 사료섭취량이 늘어나고, 성장도 회복되면서 출하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돼지 가격도 약세로 돌아서서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10월은 연중 최저의 돈가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98년 이후 6년 연속 10월은 그 해의 최저 돈가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돈계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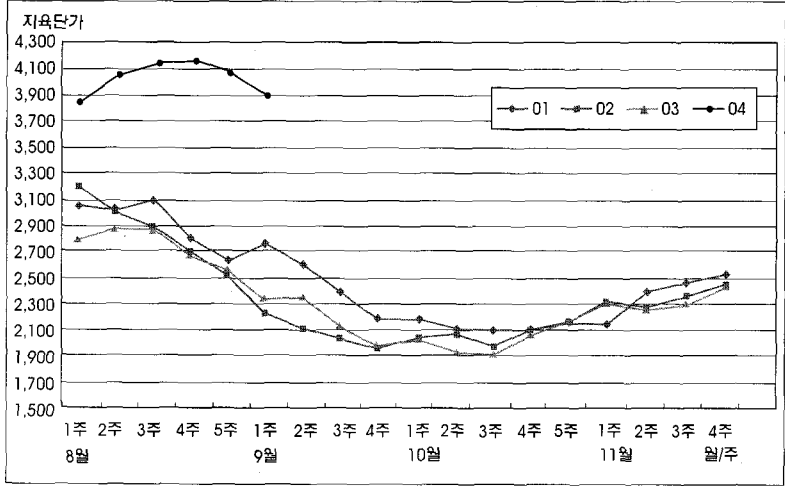
10월 비육돈 지육단가가 최저치를 기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월의 지육단가가 2,874원을 기록하여 지금까지는 올해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금년 10월 비육돈 평균 지육단가 또한 이 수치를 넘어 설 것으로 보여 1월의 평균 지육단가가 올해의 최저치 단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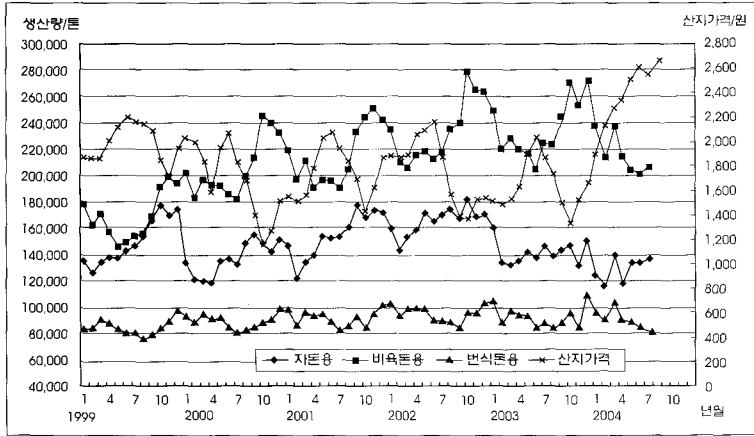
현재 돈육시장은 크게는 광우병과 조류독감 이후 증가된 돈육 소비로 수요가 증가하고, 각종 소모성질병으로 인한 출하두수 감소로 공급이 감소하여 사상 최고의 고돈가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고돈가 구조의 돈육시장은 공급의 증가 혹은 수요의 감소에 따라서는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공급의 증가는 8월 출하가 지연되었던 돼지와 정상적으로 성장된 돼지가 함께 출하되는 10월을 중심으로 도매시장의 출하두수는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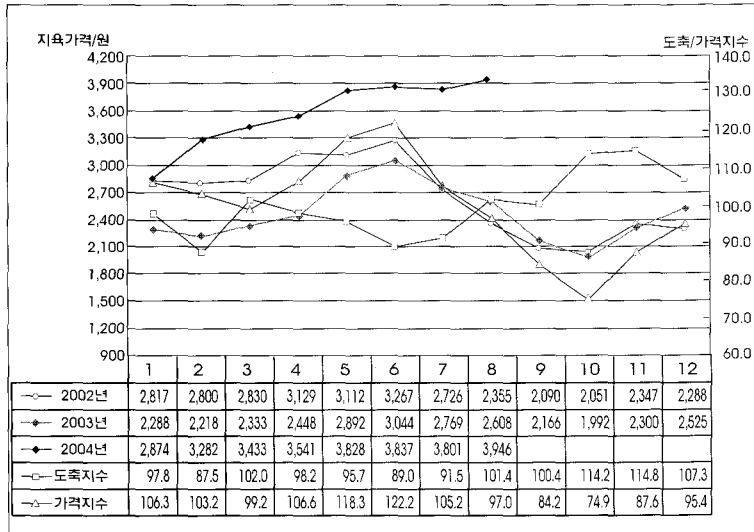
<그림 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간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림 2〉 최근 6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림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폭의 증가를 나타낼 것이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추석명절을 지나면서 사상 최악의 경기를 반영하면서, 소비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보여 10월의 돈육시장은 일시적인 공급 과잉을 보이면서 지육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의 최근 6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 중에서 자돈사료 생산 추이곡선을 살펴보면,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을 바닥으로 5월 이후부터 서서히 자돈사료 생산량이 증가

하여 8월부터는 출하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8월은 폭염으로 인한 성장 지연으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9월부터는 출하두수가 늘어나면서 10월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리라고 본다.

또 다른 돼지고기 공급 측면 수입물량을 살펴보면, 7월 돈육 수입량은 8,635톤으로 6월 대비 26.5%가 감소하였으며, 7월까지 누계 수입량은 63,842톤으로 작년 1년 동안 수입량인 60,790톤을 초과하여 전년보다는 매우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들면서 국제 돈가도 동시에 상승하고 국내 돈가도 하락이 예상되면서 돈육 수입량은 3~4만톤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금년 국내 생산량이 전년보다 4만톤 정도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생산량과 수입물량을 합친 전체적인 공급량에는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전년 동기보다는 소비가 늘어나 돈육시장의 고돈가 추세를 뒤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월은 일시적인 공급 증가와 소비 감소가 겹쳐지면서 돼지가격의 하락이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을 종합해 볼 때, 10월의 돼지고기 시장은 전반적인 소비 감소와 공급 증가로 인하여 비육돈 지육 단가도 약세를 보이면서 지육 kg당 3,20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양돈